

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4644
----------	------

발의연월일 : 2024. 10. 10.

발 의 자 : 이재정 · 박지혜 · 김원이
김남근 · 김주영 · 윤건영
강준현 · 위성곤 · 박해철
오기형 · 임미애 · 이수진
김영배 · 이병진 · 김현정
한정애 · 김영진 · 안도걸
양부남 · 문대림 · 이개호
박용갑 · 황명선 · 박홍배
전진숙 · 김영환 · 최기상
이강일 · 김용만 · 이해식
이용선 · 이기현 · 정을호
송재봉 · 홍기원 · 조인철
민병덕 · 김용민 · 추미애
정진욱 · 김 윤 의원
(41인)

주 문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급습으로 격화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4만 1천 명 이상이 사망하고, 부상자도 9만 6천 명에 달한다. 잔해에 묻혀 찾지 못한 실종자도 1만 명 이상이다. 10월 7일 공격으로 이스라엘인 1,139명이 사망했으며, 현재 97명 이상이 가자지

구에 포로로 억류돼 있다.

지난 1년 동안의 이스라엘 공습은 가자지구의 대부분을 파괴했다. 거주지 60%, 상업 시설 80%, 학교 건물 85%가 파괴되고, 36개 병원 중 17개 병원만이 부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와 구호품 반입 통제로 가자지구는 심각한 인도적 위기에 처해있으며, 가자지구 인구의 절반인 110만 명이 재앙적인 수준의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불법 점령한 서안지구와 레바논으로까지 공격을 확대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지난 일주일 동안 레바논 전역을 공습했고, 이로 인해 1천 명 이상이 사망하고, 부상자도 6천 3백 명에 달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국제인도법과 국제 인권법에 따라 무력충돌 중이라도 민간인은 보호되어야 하며, 민간인을 향한 공격은 중대한 범죄행위로,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오랜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에 있다는 사실을 상기한다. 이스라엘의 불법 점령은 오랫동안 주변국과의 갈등을 일으키고, 중동 지역의

불안과 긴장을 고조시켜왔다.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지난 7월 19일(현지시간) 1968년 이후 지속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은 ‘불법’이라고 판단하며, 팔레스타인 영토 점령을 가능한 빨리 중단하고,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해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완전한 배상을 하라고 명령했다. 이어 9월 18일 유엔 총회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 12개월 내 종식」 결의안을 채택했으나, 한국 정부는 기권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가자지구의 민간인 피해가 전례 없이 커지고, 인근 지역으로 무력 충돌이 확산되며, 중동지역의 긴장이 급격하게 점증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더 이상의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모든 적대행위와 무차별적인 공격을 중단하고, 양측이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에 돌입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역에 신속하고 대규모의 인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모든 봉쇄를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가자지구 내 억류된 인질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며, 이스라엘 내 구금된 팔레스타인 수감자들 역시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 12개월 내 종식」 결의안을 지지하며, 이스라엘이 즉각 결의안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한국을 비롯해 유엔 회원국들이 결의안에 명시된 회원국의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중동지역으로의 확산 가능성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이스라엘이 레바논으로의 공습을 중단하고 휴전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제안이유

2023년 10월 7일 이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격이 1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례없는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으며, 재앙 수준의 인도적 위기가 발생합니다. 이에 유엔의 여러 기구들은 ‘즉각 휴전’을 요구하고,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지난 1월 이스라엘에 ‘집단학살 방지’와 ‘팔레스타인 주민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도 요구하였습니다. 5월에도 ‘라파 공격 중단’을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서안지구와 레바논까지 공습을 확대하며 중동 전역으로의 확산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 이상의 민간인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